

예비창업가의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다중매개역할*

박재춘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예비창업가의 학습된 무력감, 회복탄력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효능감의 인관계를 규명하였다. 특히,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다중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예비창업가들의 학습된 무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예비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넷째,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은 다중 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예비창업가들이 지각하는 높은 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을 거쳐 결국 창업효능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학습된 무력감, 회복탄력성, 기업가정신, 창업효능감, 다중 매개효과

1. 서론

World Bank에 의하면, 국내 창업환경은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2009년 53위에서 2017년 9위로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8). 그러나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보면, 창업기업(2016년 기준)의 1년 후 생존률이 65.3%인데 비해, 3년 차에는 41.5%, 5년 차에는 28.5%로 시간이 갈수록 창업기업의 생존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평균 생존률(40.9%)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또한 창업 후 7년이 안된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중소벤처기업부, 2018), 창업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창업자금 확보(67.4%)’ 다음으로 ‘창업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27.4%)’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창업가들은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실제로도 창업기업의 생존률이 낮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업효능감을 높여 창업성공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창업가들은 창업과정에서 실패를 반복할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여, 사업실패의 원인을 외부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화되는(Rogoff et al., 2004; Ucbasaran et al., 2009; 이종선·김나미, 2019) 등 창업효능감이 감소하게 된다. 창업은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이 높아 실패확률이 높은 과정으

로 창업가들은 창업과정에서 자주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된다. 결국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창업가는 쉽게 낙담하게 되며, 이는 학습된 무력감으로 연계되어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왕외·정수진, 2018).

이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실패경험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사람들이 무기력한 심리상태에 놓이는 것을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 Seligman & Maier, 1967)’이라 하며, 이러한 경향은 창업가들의 향후 창업과정에서 패배의식이나 무기력한 상태를 직면하게 하여 창업을 어렵게 한다. 예비창업자인 대학생 역시 모의 창업경진대회나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국내 교육특성상 대입고사 등 각종 시험에서 서열경쟁에 따른 실패상황에서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 준비과정에서 회복탄력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다중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또는 정서적 변인의 중요성이 강조(Ajzen, 1991)됨에도 불구하고, 창업연구에서 창업자들의 인지적 및 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예를 들어, 회복탄력성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창업환경에 새로운 창업기회를 창출하고, 창업기회에 도전하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독저자,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innosapark@dankook.ac.kr
· 투고일: 2019-11-10 · 수정일: 2019-12-14 · 게재확정일: 2019-12-26

게 하는 창업성공의 핵심요소(Shane & Venkataraman, 2000; Zbierowski, 2015)로 대학생들의 창업성공을 지원하는 회복탄력성 등 인지적 요인의 연구가 필요하다(Darmanto & Yuliani, 2018). 즉, 선행연구(예: Ayala & Manzano, 2014; Bullough et al., 2014)에서 창업성공의 핵심변인으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창업연구에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에 긍정적인 인지적 변인인 회복탄력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경험이 창업자들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Uy et al., 2013; Zbierowski, 2015)에도 불구하고, 국내 창업환경에서는 ‘한 번의 창업실패는 낙오자’라는 인식이 강해 창업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여 창업성공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매우 어렵다. 특히, 국내 학업환경에서 대학생들은 많은 경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신이 직면한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무력감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키게 된다(Schepman & Richmond,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에서 예비창업자들의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Boudreaux et al., 2019; Farashah, 2015)들은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가 지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이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이 주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부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인지적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인지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Newman et al.(2019)은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하여 창업효능감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효능감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창업의도와 창업자의 감정 및 인지적 상태의 매개역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창업효능감의 원인(예: 경험, 교육 및 훈련, 위험추구 등 개인차)이 창업효능감으로 연계되는 메커니즘은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다중매개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

Seligman과 동료(예: Maier & Seligman, 1976; Overmier & Seligman, 1967; Seligman & Maier, 1967)들은 동물실험에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경험이 실제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회피하지 않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면서 ‘학습된 무력감’을 주장하였다. Abramson et al.(1978)은 이러한 개념을 인간으로 확장하여 학습된 무력감을 재정의하였다.

Miller(1984)는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쾌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충격이나 스트레스 등 극한상황에서의 경험으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신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Peterson & Park, 1998). 학습된 무력감(Seligman, 1975)은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자신이 직면한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김영미, 2012). 특히, Peterson et al.(1993)은 학습된 무력감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지패턴을 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다고 판단하게 하여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하였다(왕외·정수진, 2018).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학습된 무력감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낮추고,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능동성을 줄여 통제력을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하였다(Maslach et al., 2001). 즉, 학생들이 반복적인 실패 경험으로 인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된 경우,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아영, 2002; 박경환, 2008).

학습된 무력감은 내적 무력감과 외적 무력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Abramson et al., 1978). 내적 무력감(internal helplessness)은 무기력한 상황에 직면한 개인의 특성에서 발생하게 된다. 내적 무력감은 낮은 유능감(self-esteem)과 관련된다. 이에 반해, 외적 무력감(external helplessness)은 회피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환경 그 자체이다. 학생들에게는 사회 및 학교 환경 등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외적 무력감으로 작용된다(최정·현은민, 2018).

결론적으로 학습된 무력감은 극복하기 어려운 역경에서 무기력한 반응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기대와 성취에 대한 목표의식이 저하되고,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사람들의 동기, 인지 및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박성희·김희화, 2008). 예를 들어, Maatta et al.(2007)는 학습된 무력감이 높은 집단(청소년)에서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고, 참여도 역시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된 무력감에 노출된 대학생들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고취나 창업과정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박경환, 2008).

2.2 기업가정신

Schumpeter(1934)가 기업가를 혁신가와 동일시하며, 경영혁신을 이끌어내는 동기유발 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한 이

래,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예: Drucker, 1985; Shane, 2012; Stevenson, 1983)들은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으로 위험감수성, 혁신성, 책임감, 진취성 및 자율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Miller, 1983; 남정민 외, 2014). 즉, 기업가정신은 기업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은 크게 개인특성, 환경특성, 조직특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박재춘·김주섭, 2019). 영향요인 중 조직 및 환경특성은 외부요인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개인들이 통제가 힘든 변인인 반면, 창업가 개인의 인지적 능력은 학습이나 경험으로 조절이 가능한 변인이다(최종열·정혜주,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Rauch & Frese(2007)는 메타분석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진취성, 성취욕구, 자율성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3 회복탄력성

사람들은 실패상황에 노출 된 후, 자신의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에 따라 무기력하거나 실패에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Kim & Clifford, 1988). 즉,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재창업을 위한 역량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량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강조되고 있다(김수연 외, 2019).

회복탄력성은 위험상황이나 어려운 역경을 경험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을 의미한다(Werner & Smich, 1992). Luthans(2002)는 회복탄력성을 사람들이 경험하는 역경, 실패, 갈등 또는 긍정적 사건이나 진보, 증가된 책임감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은 사람들이 직면한 힘든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이며(Waxman et al., 2003), 학습 및 개발 가능하며, 지원가능한 특질이다(Goodall & Johnston-Wilder, 2015).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실패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기제로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예: Youssef & Luthans, 2005; 김수연 외, 2019). 예를 들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인식이 높고,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뛰어나기 때문에(Ryff & Singer, 2003),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으므로(Reivich & Shatte, 2002), 기업가정신 및 창업효능감과 높은 관련이 있다. 특히, 회복탄력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확실한 환경에서 다양한 변인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Dyer & McGuinness, 1996).

결론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은 실패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이 부재할 경우, 긍정적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없는 부정적인 동기부여에 노출되게 된다(Frese & Fay, 2001).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낮은 통제력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이 낮기 때문에(George & Jones, 2001), 예비창업자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4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Bandura(1977)의 사회적 학습이론의 핵심개념인 자기효능감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Bandura, 1977). 사람들은 객관적인 능력보다는 인지적 능력(예: 자기효능감)에 의해 동기부여 되고, 결국 사람들의 행동이나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Markham et al., 2002; Wilson et al., 2007).

몇몇 선행연구(Gartner, 1988; Kasouf et al., 2015)들은 창업가의 특질이 창업성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적 능력(예: 창업효능감)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박재춘·김주섭, 2019). 즉, 효능감은 기회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비)창업가들의 창업의도의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Barbosa et al., 2007; Scherer et al., 1989; Wang et al., 2002). 특히, Boyd & Vozikis(1994)는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행동 통제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창업효능감을 강조하였다(박재춘·최민정, 2016).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은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창업가의 다양한 역할과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Chen et al., 1998; Hisrich et al., 2013). 창업효능감은 창업 과정에서 경험과 학습으로 개발되며(Barbosa et al., 2007), Sedlan-Konig(2016)은 창업효능감이 예비창업가들의 창업활동이나 목표선택, 창업성과 등에 영향을 주며(Zhao et al., 2005), 예비창업가들의 위험추구행동을 자극하여 실제 창업에 대한 기회 인식을 자극한다(Krueger & Dickson, 1994)고 하였다.

결국, 창업효능감은 실제 창업을 위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제 창업행동을 유도하는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예비창업가들의 창업효능감 등 인지적 능력에 따라 창업의도와 창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실제 창업의 성공이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박일주, 2019).

창업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는 크게 창업자 개인특성, 업무 및 조직특성,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환경적 변인으로 창업관련 사회적 지원, 문화나 제도, 환경의 역동성 등이며, 업무 및 조직특성은 의사결정과정, 마케팅 역량, 멘토

링, 창업지원 및 교육 등이다. 개인 특성으로는 창업 및 업무 경험, 위험추구성향, 열정, 성취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다 (Newman et al., 2019).

III. 연구가설 설정

3.1 기업가정신 및 창업효능감의 영향요인: 학습된 무력감과 회복탄력성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Bandura, 1997)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의 개발을 위한 사회적 학습에서 사회적 맥락의 역할과 행동의 관찰과 모방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즉, 창업성공은 성취경험,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및 정서적 상태를 통해 개발되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의 학습, 업무 및 창업경험, 인지적 능력, 문화 등은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게 된다(Newman et al., 2019).

특히, Shane et al.(2003)은 창업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거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개인변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Rutherford & Holt(2007)는 개인수준모델에서 프로세스 및 맥락과 더불어 개인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효능감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서 개인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요인(회복탄력성)과 부정적 요인(학습된 무력감)을 동시에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 중 업무 경험(성공 및 실패 창업경험)과 개인특성의 차이점(위험추구성향, 인지적 능력, 창업자의 열정 및 퍼스낼러티 등)이 실증되고 있다(Newman et al., 2019; Rutherford & Holt, 2007). 예를 들어, Zhao et al.(2005)와 Lee et al.(2016)은 창업경험이 창업자의 성취경험이나 대리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효능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Zhao et al.(2005)과 Zhang & Cain(2017)은 대학생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Mumieks et al.(2014)은 대학생들의 창업가적 열정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 연구에서도 Birley & Westhead(2004)는 핵심적인 영향요인이 창업가의 자율성이라고 하였으며, Ziyac et al.(2015)은 회복탄력성이 기업가정신과 유사한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Rauch & Frese(2007)는 메타분석에서 자율성, 일반적 자기효능감, 진취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등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Zbicrowski(2015) 역시 자기효능감 등 긍정심리자본이 기업가정신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사회인지이론과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회복탄력성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창업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창업기회를

창출하여 창업성공을 이끄는 핵심요소이다(Ayala & Manzano, 2014). 즉, 회복탄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은 불확실한 창업환경을 극복하고자 더 열심히 창업 준비를 하고, 자신의 실패를 학습의 기회를 삼아 새로운 창업기회를 창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Cooper et al., 2004).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힘든 창업환경을 인내하고 위험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이나 창업효능감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회복탄력성은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회복탄력성은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을 개발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해왔으나, 창업가들의 창업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즉, 창업성공에 부정적 동기부여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이나 능력(예: 갈등, 소외감, 무력감 등)을 간과한 채, 긍정적인 감정에만 초점을 둔 한계를 보이고 있다(Reeve, 2009; Wiklund et al., 2019).

창업 준비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대학생들이 쉽게 경력선택에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결정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이나 기업가정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게 된다(Boudreaux et al., 2019). 특히, 국내 대학생들은 대학입시, 대학 학점의 상대평가 등 순위경쟁 속에서 반복되는 좌절감을 지각하게 되고, 이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결여시키거나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무력감은 실제 대학생들의 자기조절적 수단(Bandura, 1997)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국내외 연구에서 창업효능감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습된 무력감 효과의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창업가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학습된 무력감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정신의 지속성, 창업의도 및 창업초기단계에서 성공에 대한 기대를 낮춤으로써 창업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Arenius & Minniti 2005, Morales-Gualdron & Roig, 2005). 또한 Shinnar et al.(2014)은 미국, 중국 등 국제비교연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효능감(Farashah, 2015)과 기업가정신(Boudreaux et al., 2019)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Schepman & Richmond(2003)는 구성원들이 지각한 학습된 무력감이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김수진 외(2016)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박경환(2008)은 대학생들의 학습된 무력감이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박일주(2019)는 국제 비교

연구에서 OECD 27개국과 우리나라의 사내기업가 모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인지이론에서는 과거의 성공경험 또는 실패경험이 사람들의 인지적 역량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Bandura, 1997). 예를 들어, 자기역량에 대한 의심은 자신의 신념을 감소시키고 결국 자신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Bandura & Jourden, 1991; Wood & Bandura, 1989). 이는 과거의 실패경험으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을 줄이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실증연구(예: Rauch & Frese, 2007; Schepman & Richmond, 200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학습된 무력감은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학습된 무력감은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과 회복탄력성의 다중매개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개인이 직면한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4가지 변인(성취경험,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정서적 상태)이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실패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인지패턴을 약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열정을 포기하게 만든다(Peterson et al., 1993). 즉, 학습된 무력감은 예비창업자들의 인지 및 정서적 상태를 거쳐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먼저, 학습된 무력감, 회복탄력성 및 창업효능감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창업가들은 창업과정에서 창업경험을 통해, 활기와 행복한 시기와 더불어 스트레스와 자원의 고갈의 시기가 반복되는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된다(Wiklund et al., 2019). 대학생 역시 학창시절에 경험한 반복된 실패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 지각은 예비창업가들의 업무수행이나 창업 과정에서도 자율성, 자신감 및 소속감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내재적 동기부여가 감소되게 된다(왕외·정수진, 2018). 이에 Monllor & Murphy(2017)은 창업의도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회복탄력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Peterson et al.(1993)은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한 구성원들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내재적 동기부여 수준(예: 일반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이 감소하

게 되며, 이는 결국 창업효능감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부정적인 과거 경험이 대학생들의 성취경험이나 정서적 상태(예: 회복탄력성)를 감소시켜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창업연구에서 긍정심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긍정심리(예: 회복탄력성)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거나 파편화되어있다(Zbierowski,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긍정심리 변인 중 하나인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예비창업가들이 지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들의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을 감소시켜 결국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예비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두 변인간의 일관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실증연구는 창업효능감 → 기업가정신의 인과관계를 실증(예: 양준환, 2015)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실증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 창업효능감의 인과관계가 실증(예: Maritz, & Brown, 2013; Shinnar et al., 2014)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위험추구행동, 인지적 스타일 및 개인 성격 등을 창업효능감의 선행변인으로 주장하였다(Newman et al., 2019). 예를 들어, Zhao et al.(2005)과 Zhang & Cain(2017)은 기업가정신의 핵심변인 중 하나인 위험추구행동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하였다. 또한 Biraglia & Kadile(2017)과 Murnieks et al.(2014)은 기업가정신과 유사한 창업가의 열정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Dalborg & Wincent(2015)는 창업 경력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창업효능감의 선행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가정신의 선행연구들은 창업가들의 내재적 동기부여, 자율성, 긍정적 가치 및 마음상태 등을 영향요인으로 주장하였다(Zbierowski, 2015). 예를 들어, 긍정적 사고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Rosenthal, 1993)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긍정적 사고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여 창업효능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반대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거쳐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왕외·정수진(2018)은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가 학습된 무력감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

고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 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예비창업가들의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직렬다중 매개모형에서는 매개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연구(예: Rauch & Frese, 2007; Zbierowski, 2015; Ziyae et al., 2015)들은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가들의 심리적 특질(예: 회복탄력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Zbierowski(2015)는 회복탄력성이 창업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높은 직무요구(job demand)에 대한 인내와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창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여 기업가정신을 높인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예비창업가들이 지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가정신이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은 학습된 무력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회복탄력성을 거쳐 기업가정신을 줄여 창업효능감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예비창업가의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은 직렬다중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IV. 실증결과분석

4.1 표본의 설정

본 연구의 표본은 경기도에 소재한 D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D대학교는 교육부의 LINC+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선도대학 등에 선정되어 다양한 창업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을 규명하기에 적절한 표본으로 사료된다.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D대의 창업수업과 비창업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 및 교수 분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교과목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지를 학생들이 작성한 후에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158부의 설문지가 회수(회수율 79.0%)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 데이터가 있는 4부를 제외한 총 154명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4.2 기초통계량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중 남학생은 72명(46.8%), 여학생은

82명(53.2%)이었다. 대학생들의 학년은 2학년 이하 44명(28.6%), 3학년 49명(31.8%), 4학년이 61명(39.6%)이었다. 학생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112명(72.7%), 자연공학계열이 42명(27.3%)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에서 정규과정으로 개설한 창업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은 108명(70.6%)이었다.

4.3 변수측정

학습된 무력감은 손낙주(1997)가 개발한 측정도구 중 통제력 결여 항목을 제외한 24개 설문항목을 리커트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손낙주(1997)의 연구대상(아동)과 달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 분산 값이 1.451에 불과한 통제력 결여 하위차원을 제외하고, 3개 하위차원(지속성 결여, 수동성, 자신감 결여)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로는 ‘한 가지 일에 정신을 기울이는 정도(지속성 결여)’, ‘무엇이든 잘하는 정도(수동성)’, ‘수줍어하는 정도(자신감 결여)’ 등이다.

창업효능감은 Wilson et al.(2007)의 창업효능감 척도를 사용한 김미숙·김영국(2012)의 측정도구 5개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의 예로는 ‘창업과정의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할 자신감 정도’, ‘창업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 등이다.

회복탄력성은 Luthans et al.(2007)을 번역한 김강훈 외(2012)의 긍정심리자본 설문문항 중 회복탄력성에 해당되는 6개 항목을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Likert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 예로는 ‘어려운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도’,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정도’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은 Miller(1983)와 Zahra(1991)가 제시한 혁신성, 위험추구, 진취성의 3가지 차원을 사용한 윤남수(2012)의 측정도구(9개 문항)를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 예로는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성 정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정도’ 등이다.

4.4 신뢰도와 타당성분석

4.4.1 신뢰도분석

신뢰도는 내적 일치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Cronbach' a 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표 1>, 대학생들의 학습된 무력감의 하위차원인 지속성 결여, 자신감 결여, 수동성의 신뢰도는 각각 .887, .874, .811이었다. 또한 창업효능감, 회복탄력성 및 기업가정신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839, .749, .857으로 사회학에서 요구되는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1>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항목수	α계수
학습된 무력감	지속성결여	8	.887
	자신감결여	7	.874
	수동성	4	.811
창업효능감		5	.839
회복탄력성		4	.749
기업가정신		7	.857

<표 2>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2	3	4	5	6
지속성 결여	help12	.743	.192	-.126	-.010	-.209	-.096
	help20	.453	.410	-.411	-.079	.133	-.113
	help24	.687	.188	-.011	-.040	.177	-.084
	help25	.637	.256	-.098	-.218	.378	-.022
	help28	.701	.165	-.203	-.170	.329	.066
	help30	.765	.157	-.076	.005	.009	-.218
	help31	.578	.184	-.322	-.179	.192	-.149
	help32	.719	.155	-.119	-.021	.224	-.219
자신감 결여	help2	.301	.669	-.162	-.122	-.113	-.201
	help4	.076	.805	-.095	-.156	.212	-.106
	help6	.190	.751	-.156	-.152	.212	-.011
	help11	.033	.720	-.025	-.137	.286	-.229
	help13	.360	.566	.158	-.178	-.023	-.144
	help21	.286	.700	-.100	.074	.104	-.174
	help27	.341	.577	-.303	.035	.195	.085
수동성	help5	.174	.401	-.134	-.281	.450	-.177
	help22	.145	.195	-.343	-.084	.659	-.200
	help23	.168	.180	-.026	-.039	.808	-.097
	help29	.436	.114	-.199	-.058	.618	-.166
창업 효능감	효능1	-.176	-.127	.298	.793	-.004	.040
	효능2	-.136	-.154	.369	.746	-.025	.115
	효능3	-.056	-.044	.159	.704	-.075	.146
	효능4	-.034	-.070	.453	.648	-.098	.166
	효능5	.083	-.212	.113	.534	-.358	.146
회복 탄력성	복원1	-.152	-.186	.155	.186	-.315	.417
	복원2	-.177	-.139	.192	.283	-.347	.561
	복원4	-.155	-.238	.080	.235	-.366	.596
	복원5	-.270	-.245	.185	.112	-.003	.720
	정신1	-.270	-.094	.662	.146	-.120	.093
기업가 정신	정신2	-.118	.013	.688	.250	-.108	.022
	정신3	.158	-.038	.606	.042	-.333	-.223
	정신4	-.127	-.054	.737	.294	-.075	.039
	정신5	-.199	-.347	.575	.247	.041	.251
	정신6	-.132	-.132	.673	.301	-.033	.317
	정신9	-.134	-.152	.682	.158	-.082	.276
	아이겐 값	4.709	4.417	4.364	3.246	2.985	2.172
	분산(%)	13.454	12.621	12.469	9.274	8.529	6.205
	누적분산(%)	13.454	26.075	38.544	47.818	56.347	62.551

4.4.2 타당성분석

타당성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배리맥스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기준은 고유치가 1 이상으로 하였고, 요인 적재치 0.4 이상일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먼저, 1차 요인분석에서 지속성 결여와 수동성(각각 5개 문항), 회복탄력성(문항 3, 6), 기업가정신(문항 7, 8)이 요인적재

치가 0.4이하로 제거되었다. 2차 요인분석 결과<표 2>,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62.551%를 보이며, KMO값이 .888이며, 구형성 검정통계 값이 3083.862(df=595, p=.000)으로 적합하였다.

4.5 단일응답자 편차 분석

단일응답자편차(single respondent bias)의 문제해결을 위해 Podsakoff & Organ(1986)이 제시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을 하였다. 단일요인검증 결과, 총 12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전체 변량의 12.376%정도만 설명되었을 뿐 어떤 지배적인 요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Bartlett 검증(유의수준 $p < .000$)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가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실증되었으며, KMO측정치(0.867)도 최저기준치인 0.5를 상회하여 표본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동일방법 편의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겠다.

4.6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결과<표 3>, 예비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은 학습된 무력감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창업효능감 및 회복탄력성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창업효능감은 학습된 무력감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회복탄력성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과 학습된 무력감 역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1	2	3	4
학습된무력감	1			
창업효능감	-.443*	1		
회복탄력성	-.663*	.527*	1	
기업가정신	-.517*	.634*	.493*	1
평균	1.9987	3.5117	2.9968	3.4750
편차	.4998	.7378	.5216	.7116

* 0.01 수준(양측)

4.7 가설검증

직렬다중 매개효과 검증은 중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변인들 간의 영향력과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Preacher & Hayes(2008)이 제시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4.7.1 창업효능감에 대한 학습된 무력감, 회복탄력성 및 기업가정신의 영향력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은 모든 변인들의 VIF가 1.949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먼저, 창업효능

감에 대한 독립변인인 학습된 무력감의 영향력(B=-.654, $p < .001$, 모형 1)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었다<표 4>.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매개변인인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R^2)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학습된 무력감(B=.002, n.s)을 제외한 회복탄력성(B=.402, $p < .001$)과 기업가정신(B=.513, $p < .01$)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표 4>. 따라서 가설 1 역시 지지되었다.

<표 4> 창업효능감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모형1(창업효능감)	모형2(창업효능감)
(상수)	4.819(.221)	.521(.583)
학습된무력감	-.654(.107)***	.002(.123)
회복탄력성		.402(.116)***
기업가정신		.513(.075)**
R^2	.196***	.463***
ΔR^2	-	.267***
F	37.127	43.160

* $p < .05$. ** $p < .01$. *** $p < .001$, ()는 표준화 오류임.

4.7.2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습된 무력감의 효과

학습된 무력감이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5>, 학습된 무력감은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B=-.692, $p < .001$)을 주었으며, 기업가정신에도 부(-)의 영향(B=-.736, $p < .001$)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표 5> 학습된 무력감과 회복탄력성, 기업가정신의 관계

	모형1(회복탄력성)	모형2(기업가정신)
(상수)	4.379(.131)	4.945(.204)
학습된무력감	-.692(.063)***	-.736(.099)***
R^2	.439***	.267***
F	119.083	55.386

* $p < .05$. ** $p < .01$. *** $p < .001$, ()는 표준화 오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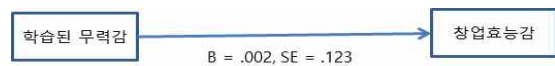
4.7.3 직렬다중매개효과 검증

다중매개효과 검증은 Preacher & Hayes(2008)가 제안한 절차로 검증하였다. 먼저,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분석으로 학습된 무력감은 창업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B=-.654, $p < .001$)을 주었다. 그러나 2단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그림 1의 b와 c>), 예비창업자들의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매개변인이 동시에 투입된 이후에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에 주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002, n.s). 또한 창업효능감의 매개변인인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한 결과(B=.366, $p < .0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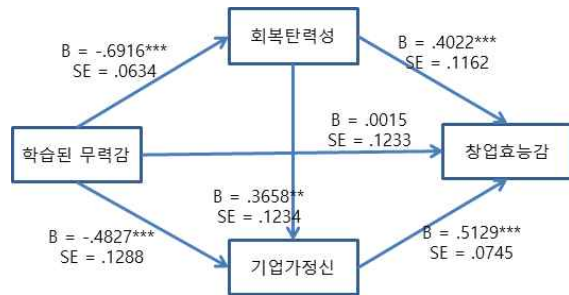
a) 매개변수 투입 전



b) 매개변수 투입 후



c) 다중매개 효과



<그림 1> 직렬다중매개검증 결과

<표 6>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Effect	Boot SE	BC 95% CI
총 간접효과	-.6555	.1050	-.8601 ~ -.4499
학습된 무력감 → 회복탄력성 → 창업효능감	-.2782	.0899	-.4536 ~ -.0995
학습된 무력감 → 기업가정신 → 창업효능감	-.2476	.0846	-.4272 ~ -.0958
학습된 무력감 → 회복탄력성 → 기업가정신 → 창업효능감	-.1298	.0519	-.2377 ~ -.0335

마지막으로 직렬다중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으로, Shrout &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절차로 검증하였다.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직렬다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 첫째, 학습된 무력감은 회복탄력성을 거쳐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2782)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4536, -.0995)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둘째, 학습된 무력감이 기업가정신을 거쳐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2476) 역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4272, -.0958)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6 역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무력감은 회복탄력성에서 기업가정신을 거쳐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특정간접효과(-.1298)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2377, -.0335) 역시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즉, 높은 학습된 무력감은 회복탄력성을 감소하게 하고, 이는 다시 기업가정신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창업효능감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의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총 간접효과(-.6555)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8601, -.4499)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음(-)의 총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창업가의 학습된 무력감, 회복탄력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효능감의 인관계를 규명하였다. 특히,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다중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예비창업가들의 학습된 무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예비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넷째,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은 다중 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예비창업가들이 지각하는 높은 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을 거쳐 결국 창업효능감을 감소시킨다.

연구의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가들의 높은 회복탄력성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을 강화하였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힘든 창업환경을 견뎌 내고, 새로운 창업기회를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을 제고하여 실제 창업성공으로 연계된다는 것이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창업성공의 핵심변인이라는 주장(예: Ayala & Manzano, 2014; Bullough et al., 2014)과 맥을 같이 한다. 국내외 연구들이 창업과정이나 성공에 미치는 회복탄력성 등 긍정심리의 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업가들의 도전의식을 제고하고 창업성공의 유인방안으로 창업가의 긍정심리의 중요성을 실증한 연구결과로 향후 창업 연구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예비)창업자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창업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제도의 보완이다. 또한 연대보증은 폐지되었으나 법인채무에 창업가 개인이 보증해야 하는 현실을 파악하여 개인보증에 대한 점검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가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상담,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비창업가의 높은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효능감의 자기참조 틀을 형성한다는 Bandura(1997)의 주장처럼, 대학생들이 기존 창업이나 학교생활의 경험에서 형성된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을 억제하는 요인임을 실증한 연구결과라 하겠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성공경험(mastery experiences)이 효능감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 주장하면서 성공은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나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창업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 및 인지적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무적으로 대학생들의 학습된 무력감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습된 무력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비창업가들의 실패경험을 줄이거나 성공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먼저, 실패경험을 감소하는 방안으로 국내 대학에서의 평가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대학생들은 상대평가를 통한 서열 줄세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에 노출되며, 자신감 결여로 학업, 취업 및 창업과정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대평가 방식은 예비창업자 선별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운용된다. 예를 들어, 각종 창업대회마다 상대평가를 통한 선정이 일반적이며,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타 예비창업가에 비해 현재 수준이 부족하다고 창업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고 실패자로 낙인되어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학습된 무력감을 야기할 수 있는 대학교와 창업대회의 상대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창업대회의 평가방식이 상대평가가 아닌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아이디어의 절대평가 도입이나 사업화가 부족한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및 멘토링 지원제도 운영 등의 방안 제시가 중요하다. 특히, 창업대회에 참여한 예비창업가들의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계획과 이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창업가들의 학습된 무력감을 줄이기 위한 창업교육,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 창업지원정책에서 창업실패에 대한 정책지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창업실패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장려할 수 있는 국내 창업문화 구축과 창업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창업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다중 매개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예비창업가들의 창업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실증하였다. Newman et al.(2019)은 창업효능감이 실제 창업이나 창업성공으로 이어지는 연계고리로 창업의도와 창업자의 감정 및 정신 상태를 주장하였으나, 창업효능감의 원인(예: 경험, 교육 및 훈련, 위험추구 등 개인차)이 창업효능감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창업가들이 지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 즉, 학습된 무력감은 창업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예비창업가들의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을 거쳐 간접적으로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다중 매개역할에서는 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낮추고, 기업가정신을 거쳐 창업효능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가들이 지각하는 환경변인과 창업성공의 관계에서 창업가의 부정적인 심리 및 인지적 변인이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입안자와 대학의 실무자들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블랙박스를 이해하여 창업실패의

경험 등으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에 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창업 멘토 및 코칭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대학생들의 심리적 기제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을 하면 패가망신”이 아니라 창업과정에서 습득했던 창업가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과 지식이 사회적 자산(Eggers & Song, 2015)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횡단연구를 실시한 바, 추후에는 종단연구를 통해 학습된 무력감, 회복탄력성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으로 정착 또는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창업효능감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번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일반적인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실패로 인한 ‘창업무력감’의 개념이나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국내 창업환경에서 창업무력감을 야기하는 원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측정도구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연구에서는 Luthans et al.(2007)의 일반적 회복탄력성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다차원 척도의 필요성이 제기(예: Ayala & Manzano, 2014)되는 바,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환경에 적합한 측정도구의 개발이나 해외 선행연구(예: Connor & Davidson, 2003)에서 사용한 다차원 측정도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이 LINC+ 사업과 창업신도대학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한 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일반화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단위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김강훈·김정기·박상만(2012). *공정심리자본*, 서울: 렉스미디어.
- 김미숙·김영국(2012). 관광관련 대학생들의 개인적 요인, 교육과 조직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외식경영연구*, 15(4), 61-84.
- 김수연·곽성열·정강욱(2019). 회복탄력성이 기업실패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경험, 역할모델,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2(1), 57-82.
- 김수진·한정화·이상명(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1.
- 김아영(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영미(2012).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47-73.
- 남정민·김성환·방누수(2014). *기업가정신과 창업*, 서울: 북넷.
- 박경환(2008).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이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9(1), 61-76.
- 박성화·김희화(2008).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3), 159-182.
- 박일주(2019). 사내기업가활동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2), 165-180.
- 박재준·김주섭(2019). 취업스트레스, 학습된 무력감, 구직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457-482.
- 박재환·최민정(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2), 9-19.
- 손낙주(1997).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인과관계*,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양준환(2015).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4), 2564-2572.
- 왕외·정수진(2018). 학습된 무기력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및 실패를 통한 학습의 조절효과 검증, *경영교육연구*, 33(6), 335-363.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이종선·김나미(2019). 창업가의 실패귀인 지향성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3), 13-26.
-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서울: 중소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2019). *창업지원기업 5년 후 생존률 일반 창업기업 보다 두배 높아(2019.4.3.)*, 서울: 중소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8). *주요 선진국 창업벤처 통계 비교 분석*, 서울: 중소기업부·창업진흥원.
- 최정·현은민(2018). 인간관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긍정정서의 효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8(3), 130-152.
- 최종열·정해주(2008). 경영학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213-230.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 Ayala, J., & Manzano, G.(2014). The resilience of the entrepreneur. influence on the success of the busines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42, 126-135.
- Bandura, A., & Jourden, F. J.(1991). Self-regulatory mechanisms governing the impact of social comparison o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41-951.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d Company.
- Barbosa, S., Gerhardt, M., & Kickul, J.(2007). The role of cognitive style and risk preferenc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13(4), 86-104.
- Biraglia, A., & Kadile, V.(2017). The role of entrepreneurial

- passion and creativity in develop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sights from American homebrew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5(1), 170-188.
- Birley, S. & Westhead, P.(2004). A taxonom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their impact on firm growth and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1), 7-31.
- Boudreaux, C. J., Nikolaev, B. N., & Klein, P.(2019). Socio-cognitive traits and entrepreneurship: The moderating role of economic institu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4(1), 178-196.
- Bullough, A., Renko, M., & Myatt, T.(2014). Danger zone entrepreneurs: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and self-efficacy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3), 473-499.
-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oi, H. Y., & Jeong, H. J.(2008). A study on effect of management education to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5(3), 213-230.
- Choi, J., & Hyun, E. M.(2018). The effect of positive a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arned helplessness,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18(3), 130-152.
- Connor, K. M., & Davidson, J. R.(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 Cooper, N., Estes, C. A., & Allen, L.(2004). Bouncing back, *Parks and Recreation*, 39(4), 28-35.
- Dalborg, C., & Wincent, J.(2015). The idea is not enough: The role of self-efficacy i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ll entrepreneurship and founder passion: A research not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3, 974-984.
- Darmanto, S., & Yuliani, G.(2018).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self efficacy in developing entrepreneurial behavior of entrepreneur students,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24(1), 1-14.
- Drucker, P.(1985). Purposeful innovation and the seven sources for innovative opportuni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30-36.
- Dyer, J. G., & McGuinness, T. M.(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Eggers, J. P., & Song, L.(2015). Dealing with failure: Serial entrepreneurs and the costs of changing industries between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8(6), 1785-1803.
- Farashah, A.(2015). The effects of demographic, cognitive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Toward a socio-cognitive model of entrepreneurial career,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13, 452-476.
- Frese, M., & Fay, D.(2001). Personal initiative: An active performance concept for work in the 21st centur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3, 133-187.
- Gartner, W. B.(1988).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4), 11-33.
- George, J. M., & Jones, G. R.(2001). Towards a process model of individual change in organizations, *Human Relations*, 54, 419-444.
- Goodall, J., & Johnston-Wilder, S.(2015). Overcoming mathematical helplessness and developing mathematical resilience in parents: An illustrative case study, *Creative Education*, 6(5), 526-535.
- Hisrich, R., Peters, M., & Shepherd, D.(2013). *Entrepreneurship, ninth edition*, NY: McGraw Hill.
- Kasouf, C. J., Morrish, S. C., & Miles, M. P.(2015). The moderating role of explanatory style between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1(1), 1-17.
- Kim, A., & Clifford, M. M.(1988). Goal source, goal difficu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 to fail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 28-43.
- Kim, A.(2002). Development of standardized student motivation scal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5(1), 157-184.
- Kim, G., Kim, J., & Park, S.(2012). *Psychological capital*, Seoul: LUX MEDIA.
- Kim, M. S., & Kim, Y. G.(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15(5), 61-84.
- Kim, S. Y., Kwak, S. Y., & Jung, G. O.(2019). The impact of resili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failed entrepreneur: Focus on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role model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Regional Industry Review*, 42(1), 57-82.
- Kim, S., Han, J., & Lee, S.(2016).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49-61.
- Kim, Y. M.(2012). Effects of daily hassles and learned helplessness on psychological maladaptation among adolescents: Focused 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family cohes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3), 47-73.
- Krueger, N. F., & Dickson, P. R.(1994). How believing in ourselves increases risk taking: perceived self-efficacy and opportunity recognition, *Decision Sciences*, 25(3), 385-400.
- Lee, C., Hallak, R., & Sardeshmukh, S.(2016).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restaurant performance: A higher-order structural model, *Tourism Management*, 53, 215-228.
- Lee, J., & Kim, N.(2019). The effects of serial entrepreneurs' failure attribution on subsequent ventur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3), 13-26.
- Luthans, F.(2002).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 695-706.
-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2007). *Psychological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 Maatta, S., Nurmi, J. E., & Stattin, H.(2007). Achievement Orientations, School Adjustment, and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4), 789-812.
- Maier, S. F., & Seligman, M. E.(1976). Learned helplessnes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5(1), 3-46.
- Maritz, A., & Brown, C.(2013). Enhancing entrepreneurship self-efficacy through vocation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65(4), 543-559.
- Markham, G., Balkin, D., & Baron, R.(2002). Inventors and new venture formation: The effects of general self-efficacy and regretful think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149-165.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397-422.
- Miller, D. K.(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iller, D. K.(1984). *Condition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Causal Attributions in Response to a Learned Helplessness Induction*, Lubbock: Doctor of Philosophy, Texas Tech University.
- Monllor, J., & Murphy, P. J.(2017). Natural disasters, entrepreneurship, and creation after destruction: a conceptu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Research*, 23(4), 618-637.
- Morales-Gualdron, S. T., & Roig, S.(2005). The new venture decision: An analysis based on the GEM project database,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4), 479-499.
- MSS(2018). *2017 Startup Statistics*, Seoul: MSS.
- MSS-KISED(2019). *Comparative analysis of start-up and venture statistic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Seoul: MSS-KISED.
- Murnieks, C., Mosakowski, E., & Cardon, M.(2014). Pathways of passion: Identity centrality, passion, and behavior among entrepreneurs, *Journal of Management*, 40, 1583-1606.
- Nam, J. M, Kim, S. H., & Bang, N. S.(2014). *Entrepreneurship & Start-up*. Seoul: Booknet.
- Newman, A., Obschonka, M., Schwarz, S., Cohen, M., & Nielsen, I.(201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outcomes,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 403-419.
- Overmier, J. B., & Seligman, M. E.(1967). Effects of inescapable shock upon subsequent escape and avoidance responding, *Journal of Comparative and Physiological Psychology*, 63(1), 28.
- Park, I. J.(2019). Exploring the link between intra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165-180.
- Park, J. C., & Kim, J. S.(2019). The relationship among job-seeking stress, learned helplessness, job-seeking efficacy,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4), 457-482.
- Park, J. W., & Choi, M. J.(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9-19.
- Park, K. H.(2008). The influence of learned helplessness and failure tolera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job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9(1), 61-76.
- Park, S. H.(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d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learned helpless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3), 159-182.
- Peterson, C., & Park, C.(1998). Learned helplessness and explanatory style, *In Advanced Personality Springer*, Boston, MA: 287-310.
- Peterson, C., Maier, S., & Seligman, M. E.(1993). *Learned helplessness a theory for the age of personal contro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odsakoff, P. M., & Organ, D. W.(1986).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2, 531-544.
- Preacher, K. J., & Hayes, A. F.(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auch, A., & Frese, M.(2007). Let's Put the Person Back into Entrepreneurship Research: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wners' Personality Traits, Business Creation, and Succes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4), 353-385.
- Reeve, J.(2009).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5th ed.)*,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Reivich, K., & Shatte, A.(2002). *The resilience factor: 7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Random House.
- Rogoff, E. G., Lee, M. S., & Suh, D. C.(2004). Who done it? Attributions by entrepreneurs and experts of the factors that cause and impede small business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2, 364-376.
- Rosenthal, T. L.(1993). To soothe the savage breast,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1, 439-462.
- Rutherford, M. W., & Holt, D. T.(2007).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mpirical look at the innovativeness dimension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20(3), 429-446.
- Ryff, C., & Singer, B.(2003). *Flourishing under fire:*

- Resilience as a prototype of challenged thriving*. In C. Keyes & J. Haidt (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pp. 15-3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epman, S. B., & Richmond, L.(2003). Employee expectations and motivation: An application from the “learned helplessness” paradigm,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3(1/2), 405.
- Scherer, R. F., Adams, J. S., Carley, S. S., & Wiebe, F. A.(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3), 53-72.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edlan-Konig, L.(2016). Integrating entrepreneur self-efficacy into education at universities, *Ekonomski Vjesnik/Econviews: Review of Contemporary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Issues*, 29(2), 311-321.
- Seligman, M. E., & Maier, S. F.(1967). Failure to escape traumatic shock,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4(1), 1-9.
- Seligman, M. E.(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 W. H. Freeman.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hane, S.(2012). Reflections on the 2010 AMR decade award: Delivering on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7(1), 10-20.
- Shane, S., Locke, E. A., & Collins, C. J.(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279.
- Shinnar, R. S., Hsu, D. K., & Powell, B. C.(2014).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gender: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longitudinally,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2(3), 561-570.
-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evenson, H. H.(1983). A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9, 384-131.
- Ucbasaran, D., Westhead, P., & Wright, M.(2009). The Extent and Nature of Opportunity Identification by Experienced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2), 99-115.
- Uy, M. A., Foo, M. D., & Song, Z.(2013). Joint effects of prior start-up experience and coping strategies on entrepreneur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5), 583-597.
- Wang, C., Wong, P., & Lu, Q.(2002). *Tertiary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P. Phan (Ed.).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Information Age Publishing, Greenwich, CT.
- Wang, L., & Chung, S.(2018). The influence of learned helplessness on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The mediator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and the moderator effect of learning behaviors from failures, *Business Education Review*, 33(6), 335-363.
- Waxman, H. C., Gray, J. P., & Padron, Y. N.(2003). *Review of Research on Educational Resilience*, Berkeley, CA: UC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Diversity and Excellence.
- Werner, E., & Smith, R.(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Cornell University Press.
- Wiklund, J., Nikolaev, B., Shir, N., Foo, M., & Bradley, S. (2019). Entrepreneurship and well-being: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4, 579-588.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Wood, R. E., & Bandura, A.(1989). Social cognitive theor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 361-384.
- Yang, J. H.(2015). A study of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4), 2564-2572.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2), 1537-1557.
- Youssef, C. M., & Luthans, F.(2005). Resiliency Development of Organization, Leaders and Employees: Multi-level Theory Building for Sustained Performance, Authentic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Origins, Effects and Development, William Gardner, Bruce J. A., & F. O. Walumbwa, eds., *Elsevier*, 303-343.
-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ive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4), 259-285.
- Zbierowski, P.(2015). Positiv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ntrepreneurship: Theore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ositive Management*, 6(3), 16-28.
- Zhang, P., & Cain, K. W.(2017), Reassessing the link between risk avers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ediating role of the determinants of planned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23(5), 793-811.
- Zhao, H., Seibert, S., & Hills, G.(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 1265-1272.
- Ziyae, B., Mobaraki, M. H., & Saedyoun, M.(2015).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innovat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5(1), 1 - 8.

The Multi-path Mediated Effect of Resilience and Entrepreneu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Park, Jae Chu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multi-path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entrepreneu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

Research sample consisted of 154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gi-D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learned helplessness showed a negative effects on entrepreneurship and ESE. Second, resilience showed a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ship and ESE.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was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ESE. Fourth, entrepreneurship turned out to medi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ESE. Finally, resilience and entrepreneurship had shown multi-path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ESE (learned helplessness→resilience→entrepreneurship→ESE).

In particular, this study conclude with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

KeyWords: Learned Helplessnes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ship, Resilience, Multi-path Mediated Effect

*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18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innosapark@dankook.ac.kr